

투썸, 美 본토 시장 공략 나선다… ‘K-페어링’ 앞세워 승부수

내달 알렉산드리아 美 1호점 개점
디저트 등 결합 ‘K-페어링’ 전면에
DMV 권역 직영점 10곳 이상 확대
스초생·달고나 등 현지화 메뉴 80종
美 안착 뒤 일본 등 해외 진출 검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독자적인 ‘커피&디저트 페어링’ 문화를 앞세워 세계 최대 F&B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다.

투썸플레이스는 3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올드타운 킹 스트리트(King Street)에 미국 1호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DMV(워싱턴 D.C.·메릴랜드·버지니아) 권역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의 일상에 침투하는 ‘메인스트림(Mainstream)’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진은 글로벌 카페 브랜드가 즐비한 미국 시장을 첫 해외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 F&B 시장



투썸플레이스 미국 진출 발표 미디어 간담회 김신영 총괄 부사장.

인 만큼, 이곳에서의 성공이 향후 타 국가 진출 및 글로벌 확장(Multi-Nation)에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현지 카페 시장에서 커피와 완성도 높은 디저트를 함께 즐기는 ‘페어링’ 영역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시장에서 커피는 일상적인 ‘Grab & Go’ 소비 방식이 강한 반면, 케이크는 생일이나 파티 등 특별한 날에 주문하는 제

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이 두 소비 패턴 사이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한 공간에서 즐기는 ‘K-페어링(K-Pairing)’ 문화를 이식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매장의 차별점도 명확히 했다.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올데이 카페(All-day Cafe)’ 개념을 도입해 오전 5~6시 조기 오픈을 추진하며,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델리 메뉴를 대

폭 강화한다. 또한 매장 입구에는 목재로 디자인된 디저트 쇼케이스를 전면 배치해 사전 주문 없이도 현장에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얻고 다양한 케이크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국 1호점에서는 국내 베스트셀러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과 ‘떠먹는 아바(아이스박스)’ 등 대표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흑임자·인절미·달고나 등 한국적 식재료를 재해석한 K-케이크와 달고나 크림탑, 미숫가루 프라페, 불고기 비빔볼, K-토스트 등 현지화된 80여 종의 라인업을 운영한다.

미국 판매 가격은 지역별·상권별 특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현지 물가와 인근 점포 수준, 직접 소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대비 약 10~20% 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디저트 품목의 수익성에 대해 회사 측은 마진을 자체는 커피가 높지만, 케이크는 객단가가 높아 절대적인 수익 금액 측면에서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초기 브랜드 정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가맹이 아닌 현지 법인의 직영 운영 방식을 택했다. 초기 투자 규모

는 대외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매장 1곳당 오픈 비용으로 약 15억~2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알렉산드리아 1호점을 시작으로 DMV 권역 내 1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연이어 선보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 메이저 브랜드로 정착시킨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맹 사업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외 타 국가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기타 지역은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경우 매장 수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 매장 매출 향상과 디저트 강화 및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는 “투썸이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때”라며 “오는 10월 알렉산드리아 1호점을 시작으로 투썸플레이스의 새로운 글로벌 여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응급환자 살린 골든타임 ‘지역 완결형 의료’가 해답

한림의료원, 심근경색 후유증 없이 회복
응급실 도착 90분 내 혈관 재개통 중요
치료 지연 땀 뇌손상·다장기부전 위험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119를 불렀습니다. 신고 8분 만에 구급대가 왔고 심정지가 와서 제세동기를 대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배우자와 초등학교 자녀 둘을 둔 42세 남성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쓰러졌다. 구급대의 현장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20분 만에 한림대학교 교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어 즉각적인 관상동맥 재개통 시술(PCI)이 진행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끝에 의식을 찾았고 후유증 없이 퇴원했다.

3일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질병관리청

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공개한 이 사례는 심혈관 질환 대응에서 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생사 및 예후를 가르는 핵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심근경색, 심정지, 급성 대동맥질환 등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심근경색은 응급실 도착 후 90분 이내에 혈관을 열어야 하며 대동맥박리는 치료가 지연될수록 사망률이 시간당 1%씩 급증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순환기내과 최재혁 교수는 “앞선 42세 환자는 혈압이 유지돼 시술로 끝났지만, 만약 혈압이 떨어지거나 다시 심정지가 왔다면 뇌 손상이나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제약, 기미·주근깨 완화 ‘화이트타민정’

아일로 이너뷰티 신제품 선포

동아제약은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 신제품으로 기미와 주근깨 완화를 위한 ‘화이트타민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한다. 1정에 비타민C 500mg, L시스테인 120mg 등을 비롯해 비타민 B군, 비타민E, 아연 등 총 12종의 유효성분을 담았다. 육체피로는 물론 임신·수유기 또는 병중·병후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과 미아연을 보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최근 이너뷰티 제품을 선택할 때 검증된 효능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제약사의 전문성이 뷰티·헬스 시장에서도



아일로 ‘화이트타민정’

/동아제약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화이트타민정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의 전문성을 접목한 신뢰도 높은 제품을 확대해 아일로만의 차별화된 스킨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유니참, 성인용 기저귀 ‘라이프리’ 재단장

일반·장시간용으로 선택 폭 확대

LG유니참이 팬티형 성인용 기저귀 ‘라이프리’를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일반용과 장시간용으로 구성해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용 흡수량은 920ml 수준이다. 일상적인 활동 중 발생하는 요실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장시간용은 역대 자사 출시 성인용 기저귀 가운데 최대 흡수량을 갖춘 1350ml 제품이다. 일반용 대비 1.5배 높은 흡수량으로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바로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옆 샘 방지막을 달아 활동 중 옆으로 새는 것을 한 번 더 막아 준다. 소취 기능도 더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착용감도 강화했다. 라이프리 안심흡수언더웨어는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늘어나는 신축 허리밴드와 소재를



성인용 기저귀 ‘안심흡수언더웨어’ /LG유니참

적용해 속옷처럼 쉽게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설계했다.

LG유니참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고령화 관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브랜드 대표 제품 ‘안심흡수언더웨어 장시간용’은 실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출시 첫 해인 2023년 월 평균 매출 대비 2026년 1~7월 월 평균 매출은 3년만에 약 60%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웰빙,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 속도

Ⅲ 임상3상서 유효성·안전성 확인

GC녹십자웰빙이 차세대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파르나사 라지엘 테라퓨틱스가 ‘RZL-012’ 중국 임상3상에서 주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상은 성인 이중턱 환자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중추적 등록 시험이다.

RZL-012는 단 1회 투여 후 84일 시점에 위약군 대비 30%포인트 이상의 반응

률 차이를 나타내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RZL-012는 표적 지방세포를 비가역적으로 사멸시키는 차별화된 기전을 갖췄다. 기존 지방분해 시술 대비 적은 투여 횟수(1~2회)로 국소 부위 지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GC녹십자웰빙은 RZL-012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라지엘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한섬 ‘시스템 파리’ 英 진출 해리즈 팝업스토어 운영

한섬은 자사 브랜드 ‘시스템 파리’가 영국 런던 해리즈 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한섬은 이달 7일(현지시간)부터 11월까지 해리즈 2층 남성관 내 ‘컨템포러리 컬렉션’ 조닝에서 시스템 파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시스템 파리는 시스템·시스템웜프가 2019년부터 파리패션위크에서 선보여 온 글로벌 컬렉션을 지난해 독립 브랜드로 격상한 브랜드다. 한섬은 올해 초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시스템 파리 정규 매장을 연 데 이어 영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영국 런던 해리즈 백화점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차바이오텍

CGT 분석기술 국산화

차바이오텍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석 기술을 국산화하고 공공 품질평가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기술개발 플랫폼(K-CGTAP)’을 구축하고 공공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